

# 남대문시장 화재

## 1. 일반사항

소재지: 서울특별시 중구 남창동 31번지 외  
 화재일시: 1991년 12월 4일(수요일) 01시 45분  
 발화위치: 남대문시장 F동 대도마켓 2층 부르덴아동복매장  
 화재원인: 전기방석 과열

## 2. 건물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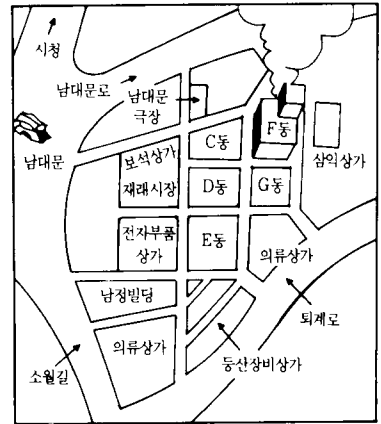
남대문시장은 여러개의 블록으로 구성된 의류상가이며, 대부분이 20~30년 전에 건축된 낡은 건물이다.

이번 화재가 발생한 F동은 대도마켓, 남대문 새마을금고빌딩, 부르덴아동복건물 등 6개의 독립된 건물로 이루어져 있으나 상인들과 소비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각 건물은 연결통로로 이어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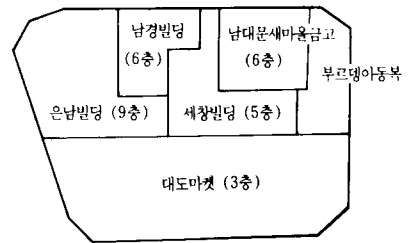
각 건물은 외벽을 공유하거나 별개의 외벽이 있어도 거의 붙어있는 상태에서 F동 전체가 하나의 건물군을 이루고 있는 상태이다.

건물은 50년대와 60년대에 신축되었으며 일부 건물은 80년대에 증·개축을 하였다.

건물의 층수는 3층부터 9층까지로 각각 상이하며, 6개 건물의 총연면적은 9,406㎡이다.



<화재현장 위치도>



<F동 건물 배치도>

### F동 건물 현황

건물명	대도마켓	은남빌딩	남경빌딩	세창빌딩	새마을금고	부르덴아동복	
건축년도	1954	1969 (’83증축)	1968	1968	1965 (’86개축)	1965	
건물구조	기둥	RC	좌동	좌동	좌동	좌동	RC 조적
	바닥	인조석 아스타일	"	인조석 물탈	"	"	인조석 아스타일
	지붕	스라브 S.Tr+합석	스라브	스라브 W.Tr+SI	"	"	"
	벽	조적조	조적조 A커튼월	조적조 밤라이트	"	"	조적조 Pw
내장재	석고텍스 밤나이트 일부Pw	아스칼 밤나이트 일부Pw	석고텍스 일부Pw	"	석고·아스칼 밤라이트 일부Pw	밤라이트 일부Pw	
연면적	1,704	3,790.8	829.4	1,276.1	1,149.6	657.2	
층 수	3층	9층	6층	5층	6층	4층	
용도	1,2층: 의류상가 3층: 사무실 (133㎡)발전실등	1,2,3층: 의류상가 4~8층: 사무실 공실 9층: 기계실등	1,2층: 의류상가 3층: 다방 4,5,6: 사무실 작업장등	1,2층: 의류상가, 사무실 3,4,5층: 음식점 작업장등	1,2층: 의류상가 3~6층: 마을금고 강당 구내식당등	1,2층: 의류상가 3,4층: 사무실 창고등	

※6개 건물 총연면적: 9,407.1㎡

건물구조는 기둥은 RC조, 내·외벽은 대부분 조적조이며 지붕은 RC스라브조와 목조(또는 철골)트라스쉬 합석(또는 슬레이트)구조이다.

내장재는 불연재료인 석고텍스, 밤나이트, 아스칼텍스를 사용하였으나 일부에서는 가연재인 합판을 사용하고 있었다.

각 건물은 공통적으로 1, 2층은 의류상가이며, 3층이상 층은 건물별로 사무실, 음식점, 작업장, 기타 기계실 등의 부속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F동 6개의 세부 건물현황은 아래표와 같다.

냉·난방시설은 건물마다 닥트방식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일부에서는 패케이지형의 에어컨과 열풍로를 설치, 사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동절기에는 각 점포마다 전기장판이나 전기난로를 많이 사용해 오고 있었다.

6개 건물 단위별로 방화구획이 부분적으로 설치되어 있었으나 그 상태가 불량하였다. 계단실 및 방화구획선상에 설치된 방화셔터와 방화문의 설치상태가 관련기준에 미달하거나 관리상태가 불량하였으며, 공조, 냉난방 닥트에 방화담과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특히 건물을 연결통로로 이어놓아 F동 전체가 방화상 하나의 위험이었다.

건물을 잇는 연결통로에는 연소확대방지조치가 되어 있지 않고 셔터가 설치되어 있었다.

소방시설로는 자동화재탐지설비, 피난구유도등, 소화기 및 옥내소화전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옥내소화전은 설치상태가 대체로 불량하였다.



▲ 화재후의 대도마켓건물 소실모습

화재가 발생한 대도마켓은 1층 871㎡, 2층 700㎡, 3층 133㎡였으며 2, 3층 부분은 이번 화재로 전소되었다.

### 3. 화재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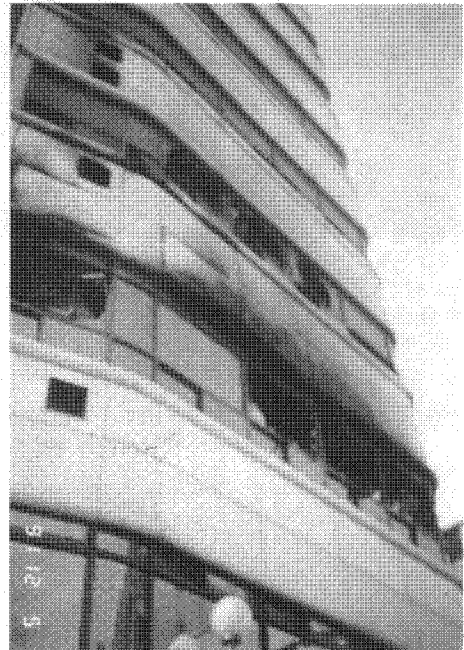
불은 새벽 1시45분 대도마켓 2층 부르덴아동복 매장에서 발생하였다. 화재당시에는 새벽시장이 열리고 있는 상황으로 매장마다 사람들이 나와 개장을 준비하고 있었다. 발화상황을 목격한 경비원에 의하면 “연기가 나서 들어가 보니 점포의 닫힌 셔터사이로 연기가 나오고 있어 다른 경비원과 함께 소화기로 진화했으나 잘 꺼지지 않고 연기가 폭 차 대피했다”는 것이다. 소화기로 진화하는데 실패

한 화재는 매장에 쌓아 놓았던 의류 등을 태우면서 빠른 속도로 확대되었다.

발화건물인 대도마켓의 2층부분을 태우면서 화재는 연결통로와 창문을 통하여 이웃하고 있는 은남빌딩, 세창빌딩 그리고 부르덴아동복건물로 연소확대되었으며, 연소원 불은 각 건물의 계단과 공조 및 냉·난방닥트를 통하여 상층으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경로를 통하여 화재는 순식간에 F동 전체에 번졌다. 화재당시 시장에는 연말을 앞두고 1~2평 크기의 각 점포마다 겨울의류를 가득히 들여 놓고 있어 연소확대가 쉽게 이루어졌다. 건물내에는 점포주인, 종업원 등 상당수의 사람들이 있었으나 대부분 내부구조를 잘 아는 사람들이어서 재빨리 피신, 별다른 인명피해는 없었다.

화재원인은 대도마켓 2층 부르덴아동복 매장내 「나라방」점포 종업원(23세, 여)이 전기방석코드를 꽂아둔 채 퇴근하는 바람에 전기방석이 과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불이 처음 난 이 점포에 정밀화재감식을 실시한 결과, 점포 구석에서 담요에 싸인 채 발화흔적이 남아 있는 전기방석을 발견하였다. 원래 시장내에서는 전열기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재전날 오후 3시쯤 전기방석코드를 뽑지 않고 퇴근, 11시간 이상동안 과열되어 전기방석코드가 녹아 합선되면서 불이 난 것이다.



▲ 방화건물과 인접하고 있는 은남빌딩의 피해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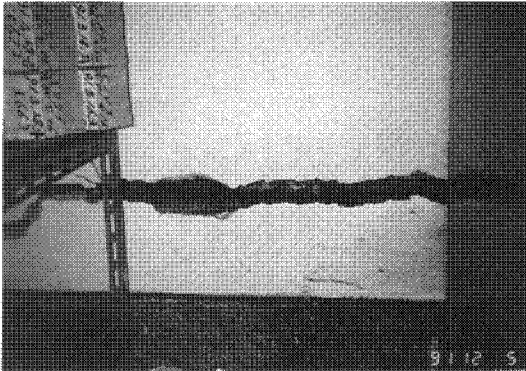
은남빌딩은 F동에서 층수가 가장 높고(9층) 규모가 큰 (3,791㎡) 건물이다. 상인과 고객들의 사용편의를 위하여 건물과 건물사이 에 연결통로를 설치해 놓아 방화건물로부터 쉽게 연소, 확대되었다.

#### 4. 진화상황

화재건물에는 소화기와 소화전이 있었으며, 남대문시장에는 소방차 1대와 청원소방원 8명으로 자체소방대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초기진화에 전혀 손을 쓰지 못했다. 가연성 의류를 태우면서 화재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방대가 출동하였다. 6개 소방서 69대의 소방차와 247명의 소방관이 동원되었으나 좁은 도로에 승용차 등이 가득 세워져 있어 화재현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었다. 또 건물 주위를 지나는 고압선 때문에 고가사다리차 등이 쉽게 들어가지 못하여 진화작업에 차질을 빚었다.

의류 등이 타면서 유독가스를 내뿜고 건물안에서 점포들이 밀집해 있는데다 진입통로가 좁고 미로처럼 얽혀 있어 소방관들이 건물안으로 들어가기에 곤란하여 진화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불길은 화재발생 4시간 후인 오전 5시 50분쯤 일단 잡혔으나 불기가 남아 연기를 내뿜어 오전 9시까지 진화작업이 계속되었다. 화재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상인들이 물건을 빼내기 위해 건물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여 곳곳에서 제지하는 경찰과 승강이를 벌렸다.



▲ 갈라진 벽체

가연성 의류 등이 장시간 타면서 내뿜은 열로 인하여 건물의 일부 벽과 바닥이 갈라졌다.

또한, 경찰은 260여명의 기동대를 출동시켜 상인들과 시민들의 현장접근을 막는 한편 주변 간선도로를 모두 차단하였고, 이 때문에 도심진입로가 출근시간에 심한 교통체증을 빚기도 하였다.

#### 5. 피해상황

6개 건물 총연면적 9,407㎡중 2층 의류상가의 대부분과 3층이상 부분의 일부가 소실되었으며 (소실면적 약 2,100㎡ 1층부분은 소방대가 진화작업시에 뿌린 물로 인하여 많은 수손피해를 입었다) F동에는 1~2평 크기의 소규모 점포 630여개가 있는데 이중 350여개가 소실된 것으로 밝혀졌다.

각 점포는 연말을 맞아 1천만이 넘는 상품을 보관하고 있어 피해가 컸다. 정확한 피해금액을 산정하기는 어려우

나 이번 화재로 약 50억원(건물피해 10억원, 동산피해 40억원)정도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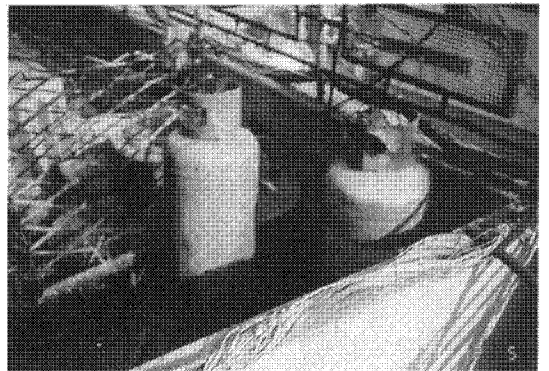
▲ 위에서 바라본 F동의 피해 상태

화재로 파괴된 철골트러스와 함석지붕 등이 앙상하게 남아 있다.

#### 6. 화재이력

남대문시장의 화재이력은 다음과 같다.

- 68년 11월 전기에 의한 화재가 발생, 1명사망, 1명 부상, 재산피해 3억4천만원
- 75년 6월 성냥불에 의하여 B동에서 화재가 발생, 9명 부상, 재산피해 4억원.
- 77년 9월 C동에서 방화에 의한 화재가 발생, 1명 사망, 3명 부상, C동이 전소되어 351개 점포 소실, 재산피해 20억원.
- 85년 3월 트럭에 실려가던 부탄가스통이 떨어져 폭발하면서 불이 시장안으로 번져 4개 상가 420여개 점포 소실, 재산피해 15억원.
- 88년 2월 남도수입상가에서 화재가 발생, 3백여 점포 소실, 재산피해 3억원.



▲ 건물 옥상에 설치된 L.P.G 용기

다행히 불길에 가스용기에는 미치지 않았다.

#### 7. 안전점검 및 보험

화재가 난 F동의 6개 건물은 모두 특수건물로서 협회에서는 매년 정기적으로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을 연 1회 실시하여 왔다. 91년도에는 5월~9월 사이에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건물관계자와 관련 행정기관에 통지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 방화구획

- 연면적 1,500㎡ 이내마다, 3층 이상은 층별방화구획
- 인접건물과의 각종 개구부는 연소확대방지를 위한 조치

-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 보완

◇ 건물에 설치된 가연성내장재는 불연화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노후감지기는 교체하고 상시 점검 유지

◇ 옥내소화전 일부 설비 보완

◇ 일부 불량한 전기배선은 규정전선으로 교체하고 무단분기배선 보완

이번 화재는 대도마켓의 한 점포에서 발생, 대도마켓건물은 물론 F동 전체로 번져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건물관계자에게 통지한 내용대로 타건물과 통하는 개구부에 연소확대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하였다면 화재는 발화건물에만 국한되어 피해가 최소화 되었을 것이다.

협회가 호텔, 시장, 고층건물, 공장과 같은 특수건물에 대하여 전개하고 있는 안전점검들의 화재예방활동이 더 큰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점검결과에 대한 사후조치가 필요하다. 해당 건물에서는 점검결과 미흡한 부분과 불량한 시설을 개수토록하여 화재발생위험을 감소시키고 화재시 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하며, 보험측면에서는 어떻게하여 위험이 현저하게 낮아진 건물에는 보험료 경감 등의 경제적 혜택을 확대함으로써 시설개선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남대문시장의 화재보험가입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은 특수건물인 관계로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의무적으로 건물을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그리고, 화재보험 풀(Pool)해체에 따라 협회에서 취급하던 시장화재보험업자가 손해보험회사로 이관되어 시장건물의 화재보험은 각 손보사에서 인수하고 있다. 그러나 재래식 시장은 손해율이 높고 의무보험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화재보험의 가입율이 낮은 실정이다.

이번 화재로 피해를 입은 F동 6개 건물중 은남빌딩과 남대문 새마을금고건물은 협회에 가입한 보험이 만기가 되지 않아 건물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였으며, 나머지 4개 건물은 손보사에 의무적으로 건물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나 이중 2개만이 가입되고 2개 건물은 미가입 상태였다. 건물에 대한 화재보험금액은 협회 2억 2천만원, 2개 손보사 6억원(합계 14억 2천만원)이었다.

한편 동산(상품)에 대한 보험은 일부 점포만이 부분되어 70여개 점포에서 보험금액 약 12억원 정도가 가입된 상태였다.

이처럼 부보율이 저조한 것은 상인들의 보험인식이 부족하고 손해율이 높은 손보사에서 적극적인 모집활동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재래식 시장은 건물과 시설이

낡고, 의류 등 가연성 상품을 취급하므로 일단 화재가 발생하면 인수에 부담이 되고 있다.

이를 계기로 시장물건에 대한 인수기법을 개발하고 보험가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므로써 시장의 높은 위험에 대처해야 할 것이다.

## 8. 문제점 및 대책

### 가. 연소(연소)위험이 큰 밀집 건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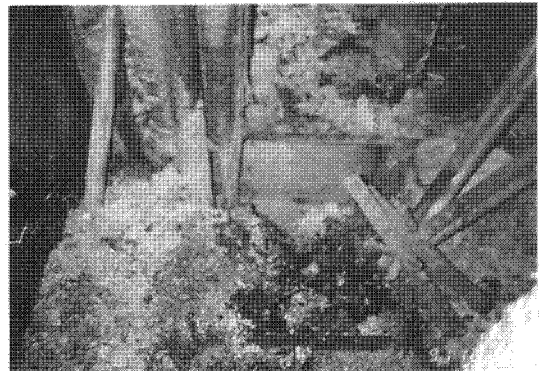
남대문시장 F동은 화재가 발생한 대도마켓을 포함하여 6개의 단위건물이 있다. 그러나 이 6개의 건물은 상인과 고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각층에서 서로 통할 수 있는 수 많은 연결통로가 있다. 어느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해도 F동 전체로 연소확대될 수 밖에 없는 건물구조였다. 최소한 타건물과 연소우려가 있는 개구부는 방화조치를 하여야 한다. 건물용도상 방화문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자동방화셔터를 설치할 수 있다.

### 나. 방화구획 미비

이 건물은 연면적 1,500㎡마다, 3층 이상은 층마다 방화구획을 하여야 한다. 부분적으로 방화구획이 설치되기도 하였으나 대부분 미설치 또는 설치상태가 매우 불량하여 이번 화재에 전혀 이용되지 못하였다.

### 다. 가연성 내장재 사용

내장재는 석고텍스, 밤나이트, 아스칼텍스와 같은 불연재를 사용하였으나 일부 천정재와 간막이 재료로 합판이 사용되어 화재가 확대되는 데 도움이 되었다. 특히 의류와 같은 가연성 상품을 취급하는 시장에서는 가연재의 사용을 억제하여 화재하중을 낮추어야 한다.



▲ 건물내에 설치된 파이프 피트

각층에서 방화조치가 되어 있지 않아 상층으로의 연소확대 요인이 되었다.

### 라. 자체 소방조직 및 소방시설 불량

남대문시장에는 소방차 1대와 청원소방원 8명으로 구성된 자체소방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화재건물에는 소화기, 옥내소화전이 있었으나 화재의 초기진화에 사용되지 못하였다. 평상시 건물 관리인과 상인에게 실질적인 소방교육을 실시하였다면 발화직후 발견된 화재였으므로 층

분히 자체진화가 가능하였을 것이다. 자체 소방조직과 소방시설을 개선하여 화재시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

#### 마. 화기관리 철저

의류시장은 화기에 의한 발화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시장내에서는 절연기구를 포함한 일체의 화기사용을 금지하고 흡연도 통제하는 것이 좋다. 중앙난방시설을 보완하여 각 점포마다 별도의 난방기구를 사용하지 않아도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바. 소화활동 조건 불량

남대문시장은 진입도로가 좁고 건물주위에 고압전선이 있어 소화활동 조건이 매우 불량한 상태이며, 화재당시에는 좁은 도로에 승용차 등의 차량이 주차해 있어 진화가 늦어졌다. 또한, 시장건물은 내부통로가 좁고 미로와 같이 복잡하여 소방대의 내부 진입이 곤란하였다. 화재위험성이 높은 시장은 화재시 소방대의 진입이 용이하도록 항상 주변도로를 정리하고 소방대의 소화활동에 방해가 되는 요인은 제거해야 한다. (㉞)